

# 예방접종 사례



(주)상일가구 보건관리자  
이 경 옥

현대는 질병양상의 변화와 환경오염, 수월해진 해외여행 등으로 전처럼 후진국, 선진국형으로 나뉘던 질병양상이 많이 희석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예측할 수 없는 전염성질환, 환경오염으로 인한 많은

사람들의 질병발생 추이는 보건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긴장하게 하는데 특히 사업장의 관리대상자인 근로자들이 단체생활 및 급식을 함으로 질병예방의 파수꾼인 보건관리자는 더욱 그러하다.

예방접종은 가장 효율적인 건강을 유지, 증진, 관리하는 중요한 측면에서 산업공동체는 짧은 시간안에 사업을 수행하고 평가하기에는 다른 어느 집단보다 유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사업장에서 원활한 사업을 수행코자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건관리자의 열의, 사업주의 협조, 근로자 참여, 관련기관과의 유대강화 등을 들 수 있는데 종종 이들간의 인식의 불균형으로 많은 산업간호사의 실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예방접종 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의 수행을 위해 이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효율적 업무를 위해 중요한 사업의 일부가 될 것이다. 더불어 산업간

호사도 자사의 특성과 보건관리 체계를 빨리 이해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중요하다.

필자는 산업간호사의 수행하는 업무 중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경기도부 성남지회의 예방접종 실태를 조사하였다. 향후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참고 자료가 되길 바란다.〈표 1〉

성남지회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항목은 B형간염, 유행성 독감, 장티푸스, 풍진, 유행성 출혈열, 일본뇌염이었다. 그의 쯤쯤가무시와 램토스피라는 접종하지 않았다.

접종기관은 B형 간염의 경우 의료보험 조합과 연결하여 신체검진을 실시한 병원에서 검사후 접종대상자일 경우 실시하거나 의료보험조합과 상관없이 회사별로 제약회사와 연결하여 실시하였다. 풍진의 경우도 의료보험조합에서 희망자에 한하여 접종을 하였고, 보건소/보건지소에서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의 유행성 독감,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일본뇌염의 경우 제약회사나 관할 보건소/보건지소에서 실시하였다.

접종은 관련기관 간호사가 실시하였다. 보건관리자가 직접 접종하는 곳은 없었고, 접종후 누락자에 한해서만 접종하였다.

금액은 개인이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였고, 회사가 부담하는 곳도 있었다.

이상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성남지회에서는 대부분 중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회사마다 실시하는 예방접종의 종류에 차이가 있어 할

〈표 1〉 예방접종 실태

종 류	접 종 시 기	관 련 기 관	금 액	지 급 방 법	접 종 방 법
B형간염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일반 건강진단 병원	무료	의료보험조합부담	병원 간호사
	매년 5~6월	제약회사	₩5,400	개인부담	접종 간호사
유행성 독감	매년 10~11월	제약회사	₩3,000	개인부담	접종 간호사
		보건소/보건지소	₩2,000	개인부담	보건 간호사
장티푸스	매년 5~6월	보건소/보건지소	₩2,900	회사부담 및 개인부담	보건 간호사
		제약회사	₩3,000		접종 간호사
풍진	매년	의료보험조합	무료	-	접종 간호사
		보건소/보건지소	"	-	보건 간호사
유행성 출혈열	매년	보건소/보건지소	₩7,700	개인부담	보건 간호사
일본뇌염	매년	보건소/보건지소	₩3,400	개인부담	보건 간호사

발한 예방접종의 아쉬움을 느꼈다. 가격에 있어서도 관련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다소 저렴하여 이곳의 활용을 권하고 싶다. 금액은 대체로 개인 부담으로 하였는데 추후 회사의 부담으로 유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사항이다. 접종은 관련기관 간호사가 실시하였는데 이는 법적인 문제 발생을 고려한 사항으로 보이며 추후 법적제도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아울러 예방접종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기준도 마련되어야겠다. 예를들어 단체예방접종 방식, 예방접종 기록관리제도, 부작용에 따른 모니터링, 개인 예방접종 카드발행 등, 그리하여 안정적인 예방접종이 실시되며 체계적인 관리가 될 것이다.

## 보건교육안

### 장티푸스

1. 장티푸스란 : 장티푸스균을 병원체로 하는 법정 전염병의 하나로 여름에 많은 환자가 발생하므로 단체 생활을 하는 직장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한 증세가 없는데도 고열이 4주

간 계속되고 정신이 쇠약해지는 질환으로 연령적으로 청장년에 많다.

- 전과경로 - 환자의 대·소변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또는 손에 묻은 입으로 전염
2. 건강장애 : 고열, 식욕부진, 몸통의 담홍색 발진, 갈색설태, 변비
    - 합병증 - 기관지염, 폐렴, 귀가먼다, 의식이 혼탁해짐, 장출혈
  3. 예방 및 관리 : 먹는약 - 3회(첫날 먹고, 세번째날, 다섯번째날에 식전 복용)
    - 주사 - 접종후 굶고 만지거나 물을 묻히지 않는다. 접종일에 음주, 심한 운동을 피한다.고열, 발적, 구토 등의 부작용시 건강관리실로 연락
    - 면역기간 - 1회 접종으로 3년지속
    -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
      - 열이 많거나 감기에 걸린 사람
      - 심한 중질환을 앓는 사람
      - 임신중일때
      - 예방접종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사람
      - 다른 예방접종과 동시에 실시하지 않는다.

### 유행성 독감

1. 유행성 독감이란 : 유행성 독감이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호흡기 질환이다. 매년 초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유행한다.
2. 건강장해 증세 및 경과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호흡분비물과 함께 기침, 재채기, 말할때 나오는 작은 물방울로 전파된다. 1~2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갑자기 심한 고열, 오한, 재채기, 기침, 두통, 관절통, 근육통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3. 예방 및 관리 : 특별한 치료약이 없으므로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을 취한다. 안정을 취하게 하고 발열, 발한으로 탈수상태가 초래되므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게 한다.

#### ■ 예 방

- ① 개인위생의 청결유지
- ② 실내온도, 습도를 적당히 유지하고 환기를 적절히 한다.
- ③ 충분한 영양섭취와 체력단련으로 저항력을 기른다.
- ④ 충분한 휴식과 신선한 야채, 과일로 비타민을 보충한다.
- ⑤ 예방접종으로 면역체를 형성한다.

#### ■ 예방접종이 필요한 사람

- ①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
- ② 단체생활을 하는 사람
- ③ 감염증에 잘 걸리는 사람
- ④ 저항력이 약한 사람

#### ■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

- ① 열이 많거나 허약한 사람
- ② 임신부 및 질환을 앓고 있거나 병원치료 중인 사람
- ③ 예방접종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닭·계란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 다른 예방접종과 동시에 하면 안됨(2주일간의 간격이 필요)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3주내 임신을 원하는 사람은  
풍진 예방접종을 맞으면 안되며  
접종후 3개월간 피임을 해야 한다.



#### ■ 예방접종후의 주의 사항

- ① 접종부위를 긁거나 만지지 않는다.
- ② 접종한 날은 비를 맞거나 목욕, 수영을 하지 않는다.
- ③ 접종한 날은 심한 운동을 삼가하고 음주는 절대 삼가한다.
- ④ 접종한 후 발열, 발적, 두통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경우 즉시 건강관리실로 연락하도록 한다.

### 풍 진

1. 풍진은 선천성 기형을 일으킨다.
2. 풍진은 감염시 발진, 감기유사증상, 귀뒤 임파선이 붓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임신 초기에는 산모가 풍진에 걸리면 산모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는 다음의 기형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 선천성 심장병
  - 청각장애
  - 시각장애
  - 신경장애
3. 예방 및 관리
  - 풍진에 의한 기형은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풍진은 단 일회의 예방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다.

- 접종자의 95% 이상에서 풍진항체가 생겨나며 일단 생긴 풍진항체는 적어도 15년 이상 지속된다.
- 풍진 예방접종은 거의 부작용이 없으나 간혹 주사부위의 가려움증, 발적 등의 경미한 소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자연 치유된다.
- 이런 분은 풍진 예방접종을 맞지 않는다.
  - 고열이 있거나 몸의 면역능력이 많이 떨어진 사람
  - 주사에 대한 과민반응이 있었던 사람
  - 임신부나 현재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지금부터 3주내에 아기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
  - 가임여성은 적어도 1개월간 피임한 후 접종해야 하며 접종후에도 3개월간은 피임을 해야한다.
-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 주사를 맞으신 후에 일상적인 활동을 해도 된다. 다만 주사부위를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말고, 하루정도 주사부위에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 간염

1. 간염이란 : 간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서는 알콜, 화학물질, 약제(항생제, 변비약, 결핵약, 신경안정제 등)에 의한 경우가 있으나 대개는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병된다.  
간염바이러스는 약 28종이 있으며 대부분의 바이러스성 간염은 A형이나 B형 혹은 A형도 B형도 아닌 nonA nonB(C형이라고도 함)의 바이러스에 의해 생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간염의 80~90%는 B형바이러스 간염으로, 간염중 병 경과가 가장 불량한 간염이다.
  - 전파경로 : 주로 체액(수혈, 주사, 침구)에 의해 전염되지만 분비물에 의해

전염될 수 있다. 즉 키스(타액, 성교(정액 및 분비물)외 술잔, 물컵, 칫솔, 타올 등을 공동 사용할때 감염될 수도 있으며 또한 감염을 앓는 임부의 경우 신생아에게 수직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다.

### ■ B형간염의 문제시 되는 이유

A형 바이러스성 간염은 잘 낫고 만성간염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C형 바이러스성 간염은 만성화가 되기는 하나 간경변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다. 반면에 B형 바이러스성 간염은 10~20%에서 만성화되어 간경변증으로 발전되기도 하고 간혹 간암을 일으키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 B형 간염보균자가 전 인구의 약 12%나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B형 바이러스성 간염에도 걸릴 수도 있다.

2. 건강장해 : 간염의 초기에는 아무런 증세도 없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식욕부진, 구토증, 소화불량, 전신권태감, 미열 등이 있다가 황달이 점차 나타난다. 그러나 황달 등 별다른 증상없이 간염을 앓을수도 있으므로 우리나라처럼 간염 환자가 많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간기능검사를 꼭 해야한다.
3. 예방 및 관리 : 간염에 대한 별다른特效약이 없기때문에 예방하는 것만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손발을 깨끗이 씻고 과음을 피하며 피로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위생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B형 바이러스성 간염의 경우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다.

- 예방접종 방법 : 간염 검사시 항체에 면역이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 4주 안에 한달에 1회씩 3회 접종과 5년마다 추가접종을 원칙으로 한다.

- 예방접종을 꼭 해야 할 사람
  - 의료계 종사자와 그 가족
  - 가족 중에 B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나 환자가 있을 경우
  - 공장근로자 및 군인 등 단체생활을 하는 사람
  - 급·만성 간질환이 빈발하는 가족
- 접종금기사항 : 약에 대한 과민반응을 보이는 경우, 수유부나 임산부, 인슐린 주사를 맞는 당뇨병 환자

**유행성 출혈열**

1. 유행성 출혈열이란 : 주로 가을철(10~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한탄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열성 질환으로써 고열, 출혈 증상 및 신장, 심장, 뇌하수체 이상으로 사망하는 치사율이 7% 이상이나 되는 법정 전염병이다.
  - 감염 경로 : 쥐의 배설물에 섞여 있던 한탄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인체의 호흡기로 감염된다.
2. 단계별 건강장해
  - ① 발열기 : 열이 지속되며 두통, 구토, 복통, 혈뇨 동반
  - ② 저혈압기 : 혈압이 저하되며 구토와 복통 지속 → 쇼크
  - ③ 감뇨기 : 소변이 거의 안 나오고 폐부종이 일어나고 폐감염, 중독 감염이 일어난다.
  - ④ 이뇨기 : 소변량이 늘어나면서 탈수증이 일어나고 폐감염, 중독 감염 발생
  - ⑤ 회복기 : 천천히 회복되면서 소변의 농축기능 정상화
3. 예방 및 관리
  - ① 예방접종실시(한타박스)



A형 바이러스성 간염은 잘 낫고 만성간염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C형 바이러스성 간염은 만성화가 되기는 하나 간경변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다. 반면에 B형 바이러스성 간염은 10~20%에서 만성화되어 간경변증으로 발전되기도 하고 간혹 간암을 일으키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 B형 간염보균자가 전 인구의 약 12%나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B형 바이러스성 간염에도 걸릴 수도 있다.



- 방법 - 0.5ml를 1개월 간격으로 2회 근육 또는 피하주사
- ② 야외 노출시 장갑, 장화, 보호의를 착용
- ③ 들이나 잔디밭에 눕거나 옷을 벗어 놓지 말것
- ④ 쥐를 없애자
- ⑤ 야외활동 후 귀가 시에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목욕할 것
- ⑥ 의심되는 증세 있으면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것